자율전공학부 전공 탐색 설명회, 'Do Dream'성료

조여경 기자 ykyungjo@khu.ac.kr

【서울】 2026년 2학기 자율전공학부(자전) 전공 탐색 설명회 DO DREAM이 지난 6일 청운관 지하 1층 KHU Creative Camp(KCC)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총 13개 학과가 참여했다. 설명회는 ▲전공 탐색 상담 ▲미니렉처 및 졸업생 특강 ▲학사 안내 및 상담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자전 이진섭 행정실장은 "자전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들을 직접 탐색하고 교수진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설명회를 통해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의 전공을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전 이정희(문학) 학부장은 "지난 학기 전공 탐색 박람회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에 대해 폭넓게 알아볼 수 있었다"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수진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관심이 있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있게 탐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해당 전공 교수와 직접 상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학과 소개뿐 아니라 전공 선택자들의 현장 경험, 학회 등 학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었다. 지리학과 부스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지리학과 정아라(지형학) 교수는 "AI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폭넓은 경험으로 이어지는지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음에 둔 학과가 있음에도 다른 학과까지 폭넓게 알아본 학생도 있었다. 어별(자율전공학 2026) 씨는 "물리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본 전공 외에 다전공 관련해서 타 학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참여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응용영어통번역학과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전공을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주변 고등학교 학생들도 전공 탐색 설명회에 참여했다. 경희고등학교 2학년 신해온 씨는 "평소 약사 또는 신약 개발 관련해서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경희대학교 약과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약과학과 미니렉쳐를 들어보니 요즘은 신약 개발이 대세인 것 같아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이과대학 소속 학과 부스와 약과학과 부스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렸다. 이러한 쏠림 현상에 대해 이 학부장은 "학생 수가 특정 학과에 쏠리더라도 학생들의 선택권과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자율전공학부의 의의"라며 "전공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돕는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상위 2% 연구자' 국내 학부생 최초 선정

김효경 기자 Rlagyrud@khu.ac.kr



오 씨는 "단순 질환 유병률 파악 뿐만 아니라, 질환을 겪은 이후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둔 데이터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며 '코로나 이후 발생 질환', '세계 질병 부담 연구' 등을 진행했다. (사진= 오지연 제공)

【서울】 우리학교 오지연(의학 2021) 씨가 국내 학부생 최초로 '세계 상위 2% 연구자(World's Top 2% Scientists)'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 씨는 경희디지털헬스센터 소속의 학부 연구원으로서, 연동건(의학) 교수의 지도 아래 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를 해왔다.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인 《Nature Medicine》, 《Nature Mental Health》, 《Lancet Respiratory Medicine》 등 국제 학술지에서 주저자로서 '코로나 이후 발생 질환', '세계 질병 부담 연구' 등의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세계 상위 2% 연구자'는 매년 글로벌 학술 정보 분석 기업 엘스비어(Elsevier)와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전 세계 연구자의 연구 영향력을 분석해 발표하는 명단이다. 명단은 연구자의 전체 연구 경력을 평가하는 생애 기준(career-long)과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최근 1년 기준(Single-layer)으로 구분되며, ▲총 인용 수 ▲표준화된 인용지수(h-index) ▲공저자 보정 지수(hm-index) 등 총 6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한다.

오 씨는 1년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최근 1년 기준 명단에 선정됐다. 전 세계 순위 735,169등, 하위 분야 일반 내과 부문 8,053등에 올랐다. 오 씨의 H-index는 9점으로 학계의 평균 박사과정생과 비교해도 맞먹을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오 씨는 "단순히 질병의 유병률을 파악하는데 그치지않고, 질환 이후의 사람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수치화하는 '세계 질병 부담 연구'에서 성과를 낸 점이 이번 선정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생으로서 학업과 병원 실습, 연구를 병행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며 "특히 논문 게재는 길게는 2년이란 시간이 걸리기도 하여, 그 과정에서 학부생으로서 학업을 병행하는 데에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씨는 "대학원생 석사 선배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 덕에 병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선정에 대해 오 씨는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 정말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오 씨는 "임상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을 연구로 해결하고, 다시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하는 의사'로 성장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2026학년도 겨울학기

경희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1. 현장실습학기제 진행절차

실습기관/학교 운영계획서 제출 운영계획 협의·확정 → 학교/학생 학생모집 학생 지원서 접수 → 실습기관 선발(면접) 및 결과발표 → 학교 학과: 학점심사 수강학점 등록 → 학교/학생 사전교육 수강 학점 확인 → 실습기관/학생/학교 3자협약 / 보험가입 (학교:상해/기관:산재) → 실습기관/학생/학교 기관별 현장실습 진행 (수행 점검 및 관리) → 실습기관/학생 출석부 및 평가표 제출 학생 결과보고서 제출 → 학생 학점인정신청 → 학교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인정

※ 모든 절차는 경희대학교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를 통해 진행

2. 실습 기간 : 2026.12.22 (화) ~ 2027.02.28 (일)

3. 학생 참여 기준

가.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다만,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가능
나.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다. 졸업유예자 참여불가
라.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 참여 가능
마. 실습기관에서 선발이 완료되면, 사전교육 이수 및 3자협약 후 현장실습 진행가능

4. 신청 및 선발 일정

구분	기관신청	학생신청	기관선발	학과심사
1차	2026.10.12.(월) ~ 2026.10.23.(금)	2026.10.29.(목) ~ 2026.11.04.(수)	2026.11.06.(금) ~ 2026.11.13.(금)	2026.12.08.(화) ~ 2026.12.09.(수)
2차	2026.11.02.(월) ~ 2026.11.13.(금)	2026.11.20.(금) ~ 2026.11.26.(목)	2026.11.30.(월) ~ 2026.12.04.(금)	